

광주 빛고을 건강타운 시 암송반 할머니들

“시 외울 때마다 보석함에 보석 넣어두는 기분”

“나, 요즘 미쳤어요.”

조병기(77·전 광주YWCA신협 이사장)씨가 요즘 만나는 사람들에게 늘상 하는 말이다. 깜짝 놀란 이들이 물어보면 웃으며 대답한다. “나, 진짜 미쳤어요. 시 암송(暗誦)예요.”

시암송국민운동본부 문길섭씨가 진행하는 빛고을 건강타운 시암송반에 다니며 ‘시 외우는 재미’에 도취된 이들을 18일 광주 한 카페에서 만났다.

“꼭 막혔던 마음이 청침함을 먹고 확 내려가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시 한편 외울 때마다 보석 하나씩을 보석함에 넣어두는 기분이에요” “시를 외우다 보면 마음도 맑아지고 순해지는 것 같기도 하구요.”

조씨와 함께 자리를 같이 한 대학 동창생 이영란(61), 조광숙(60), 주옥련(60)씨는 “함께 차 타고 가면서 아름다운 시를 함께 낭송할 때면 정말 행복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고령자인 조씨가 6개월간 암송한 시는 모두 60여편에 달한다. 전신마취를 세 차례 할 정도로 큰 수술을 하기도 했던 조씨는 솔직히 처음에 시 외우는 것에 자신이 없었다. 초반에는 잘 외워지지 않아 답답한 마음도 들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시를 접하다 보니 어느새 시가 자신에



시 한편을 외울 때마다 보석함에 보석을 하나씩 넣어두는 기분이 든다는 시 암송 전도사들. 주옥련·조광숙·조병기·이영란(사진 원쪽부터)

게 다가왔다.

“얼마 전부터 하모니카도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제 모임 가면 하모니카 연주와 시암송을 들려줄까 해요. 유년시절을 보내 친구들과 만날 때 정지용의 ‘한수’가 좋을 듯 하구요. 오랫동안 봄 담았던 YWCA 가족들을 만날 때 Y가족이기도 했던 고정희의 ‘상한 영혼을 위하여’를, 많은 사

람이 마음을 다잡아야 하는 자리에 갈 때면 합석현 선생의 ‘그 사람을 가렸는가’를 들려줘야죠.” 깊은 삶에 들지 못해 뒤척이던 새벽은 이젠 시를 암송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됐고, 항상 시와 함께 하다보니 8년전 세상을 떠난 남편을 그리며 ‘소탈한 논두렁 아저씨’라는 시를 쓰기도 했다.

김용택의 시를 좋아한다는 이영란 씨는 주방냉장고에 매주 새로운 시를 부쳐놓고 살거지 하며, 음식 장만하며 시를 외우는 시간이 행복하다고 말한다. 조광숙 씨는 며느리 생일 때 편지와 함께 이해인 수녀의 ‘나를 키우는 말’을 적어 보냈더니 며느리가 감동을 받았다는 말도 전해주었다.

“시를 외우면서 자연을 새롭게 보게 됐어요. 떨어진 낙엽도, 얼굴을 스치는 바람도 다 예전과 다르게 느껴져요. 내 곁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정답고 반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도 변한 모습이구요. 무엇보다 소녀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드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웃음) ”(조병기)

시암송반에 열심히 다니는 20여명은 최근 ‘노대글 시사당회’(가칭)를 만들었다. 이들은 오는 12월 7일 태백산맥 문학관 등 문학 현장을 둘러보는 첫번째 나들이를 기기로 했다.

빛고을 건강타운 시암송반은 만 60세 이상이

면

등록할 수 있다. 일반인 가운데 시 외우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한달에 1편, 50편을 외우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시암송국민운동본부(062-651-4117)로 문의하면 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 동구 10개 단체 경로당 등에 김치전달



(사)동구자원봉사센터와 동구의용소방대를 비롯한 광주시 동구 지역 10개 단체는 19일 동구환경관리사업소에서 관내 경로당과 소년소녀기장 등 총 124세대에게 김장김치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유태명 광주시 동구청장은 “서민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위저링기자 jrwi@

남부소방서, 제석산서 산불조심 캠페인



광주남부소방서(장윤주 서장) 의용소방대(김선필 대장)는 최근 남구 제석산 일원에서 인근 주민과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불조심 캠페인을 펼치는 현판 등산로 주변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자연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광주상의 어린이 회장단 경제교육



광주상공회의소(회장 박홍석)는 최근 7층 회의실에서 광주지역 초등학교 어린이 회장단 96명이 참가한 가운데 ‘광주상공회의소와 함께 하는 어린이 회장단 경제교육’을 개최했다.

광주 훌트아동복지회 장애아돕기 일일찻집



사회복지법인 훌트아동복지회 광주후원회(회장 김단순)는 19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3가 현대 Resto-cafe에서 미술아·장애아 돋기 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찻집 행사를 열었다.

〈사회복지법인 훌트아동복지회 광주후원회〉

조용기 우암학원 설립자 육사생도 특강



계의 권위자와 국가의 저명 인사들에게 의뢰해왔다.

조용기 우암학원장은 이날 ‘교육은 혁명을 가르치는 일이다’를 주제로 자신의 교육에 대한 철학과 인생에 대해 특강한다.

“책임감 더 느껴… 도민의 소리 반영 최선”



광주·전남 첫 여성 부이사관 배양자 전남도 민원실장

광주·전남 최초의 여성 부이사관이 단행됐다. 배양자(54) 전남도 종합민원실장이 주인공으로, 일반직 9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23년 만이다.

지난 19일자 전남도 인사에서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배 실장은 “여성으로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위의 도움이 큰 힘이 됐다”며 “승진에 대한 기쁨보다는, 앞으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절해야 한다는 부담이 훨씬 더 크다”고 말했다.

지난 1월부터 종합민원실장을 맡고 있는 그는 이미 전국적인 스타 여성 공무원이다. 배 실장의 이름 앞에는 항상

무관으로 승진해 전남도 청소년시설과장과 민원·후생계장을 거쳐 1998년 공보관실 홍보2팀장을 역임했다.

2002년 서기관으로 승진한 뒤에는 여성정책과장과 기업지원과장을 거쳐 어지간한 남자들도 버티기 어렵다는 공보관을 2년6개월 동안이나 맡으며 업무추진력과 기획력 등을 두루 인정 받아 드디어 부이사관 자리에까지 올랐다.

배 실장은 “여성이기 이전에 공무원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기울이다 보니 어느덧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됐다”며 “종합민원실장으로서 도민의 소리를 충실히 수렴, 도정에 반영함으로써 전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나경은 MBC 아나운서 ‘드림스타트’ 홍보대사에



보건복지가족부는 19일 청사에서 MBC 나경은 아나운서를 저소득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의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연합뉴스

광주 북구장학회, 장학생 163명 선발

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지난 2007년 (재)북구장학회를 설립한 이후 두 번째로 장학생 163명을 선발했다.

18일 북구에 따르면 북구장학회는 지난 16일 북구 용봉동 북구청 2층 회의실에서 제6차 이사회를 열고 ‘2009년도 장학증’ 163명을 뽑았다. 선발 인원은 고등학생·대학생 성적 우수자 64명을 포함한 저소득층 자녀 64명, 소년소

녀가장 장학생 8명, 특기생 2명 등 163명이다. 지급될 장학금은 1억3천만원이다. 지난해에는 지역 우수 인재 84명에게 6천7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으나, 북구는 그동안 기업체와 독자기, 주민 등이 보내준 성금 등으로 기금을 마련해 왔다. 장학증서 수여식은 26일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생활체육 광주시 종합 무술 회장기대=22일(일) 오전 11시 극락초교 실내 체육관. 010-8600-9898.

▲희귀화폐 전시회=12월31일까지 광주공항지하철역 역무실 앞. 온대(세계최초로 화폐를 사용한 시대) 때 동물 뼈로 만든 골제페페 등 33년 간 직접 수집한 화폐 500개 전시. 문의 박용관(011-604-6132.)

▲오치종합사회복지관 이주여성 한국사회 적응력 향상 무료 교육=요가, 웃음교육, 푸드아트테라피, 매주 월·수요일 오전, 선착순 20명. 062-267-3700.

▲자비선원 명상 무료 지도=학생, 주부, 직장인, 마음의 평화를 원하시는 분. 062-228-7701.

부 음

▲최남길(전 언론인)씨 별세 문주(전 광주일보 기자)·학주·옥주·혁주·순주씨 부친상=발인 20일(금)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5분향소. 062-231-8905.

▲고무석(전 전남대 교수)씨 별세 문주

영준(장위 치과원장)·수진·승아(서울 비타민치과원장)·희선(KT 양재동)·보나(치과의사)씨 부친상 김정근(경희대 교수)·박래준(서울 비타민 치과원장)·기운서(법무관)씨 빙부상=발인 21일(토) 그린 장례식장 209호. 062-250-4455.

▲이필암씨 별세 전동현·청선·동채·영희·문화·광숙씨 모친상=발인 21일(토)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민내례씨 별세 윤옹일(자영업)·정식(전 모아주택산업 대표이사)·재삼(대현종합건설)·재칠(동남기업 대표이사)씨 모친상 성남(전 세정신문사)·박관재(전 전남도청 사무관)·신수의(대한주택건설협회

회 광주전남도회 사무처장)씨 빙모상=발인 20일(금)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김길봉씨 별세 병록(재러시아 사업)·상철(전남경찰청 경정)·상만((주)오토에버)·윤정씨 부친상 나명연(한나라당 광주시장 사무처장)·윤기남(LS산전 부부장)씨 빙부상=발인 20일(금)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장지석씨 별세 철수·철성·선아씨 부친상=발인 20일(금)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

▲조태규씨 별세 정근·수진·수미씨 부친상=발인 20일(금) 학동 금호장례식장 402호. 062-227-4000.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화축

▲강악산·심미경씨 장남 동윤군 순광열·박영자씨 차녀 유미(담양다이너스티 C·C)양=21일(토) 오후 5시30분 서울 노블레스웨딩컨벤션 1층(그랜드볼룸)

▲김종언·김옥진씨 장남 민석군 최병우·민홍순씨 장녀 경린양=21일(토) 낮 12시40분 삼무지구 예술의전당 3층(아리아스홀)

▲주장배(신안군 의회 의장)·이숙례씨 차남 영준군 정재수·이경순씨 장녀 주희양=21일(토) 오후 1시 신안비치호텔 2층.

▲이상재(경남무역)·남기향씨 아들 광열(한국노인인력개발원)군 김선민(전 광주경찰청 정보과 외근실장)·박종임씨 딸 세희(한국노인인력개발원)양=21일(토) 오후 1시 무등파크호텔 1층(무등홀)

▲김종권·김두생씨 장남 민수군 박장수(현대건설 호남지사장)·김정숙씨 장녀 세미양=21일(토) 오후 1시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2층(무궁화홀)

▲경희화씨 삼남 윤우상(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군 박진홍(광주시 남구 환경산업국장)·박기순씨 장녀 선경(서울 문현고 교사)양=22일(일) 오후 1시40분 서울 강남동 메리어트웨딩홀 1층(사파이어홀)

▲주인철·천연자씨 장남 덕만군 김기중(전 광주일보 총무부)씨 장녀 진경양=22일(일) 오후 1시10분 삼무지구 예술의 전당웨딩홀 3층(토파즈홀)

▲송학종·유순임씨 장남 광남(행

종친회

▲함양박씨 동정공 종종(종회장 박현용) 2009년 정기총회=20일(금) 오전 10시30분 남구 백운동 동정회관. 062-652-4585.

▲경열공 정지장군 제618주기 추모제 및 사당 준공식 참석=24일(화) 오전 11시 경열사 신축된 사당. 062-365-1187.

▲북성종 22회 동창회(회장 김경범) 월례회=23일(월) 오후 7시 각화동 왕서방식육식당. 062-263-0402.

▲북성종 20회 동창회(회장 박재우) 월례회=24일(화) 오후 7시 북구청 앞 오리명가. 062-262-4488.

▲송학종·유순임씨 장남 광남(행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